

(...2 페이지에 이어)  
이를 통해 볼 때 1020은 기성세대에 비해 정치나 역사 갈등에 감정이입하지 않으며, 정치외교적 사안과 관련해 한국 측 주장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정치와 문화 소비는 별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들 1020들에게도 양국 간 정치 갈등이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류 팬이라고 밝힌 대학생 츠쿠바 마리모씨는 "TV에서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소리만 나오고, 동기에게도 한국 같은 나쁜 나라를 왜 좋아하냐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며 "인터넷에도 한국에 대한 악플만 많으니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류가 좋다고 말하기 꺼려진다"고 털어놓습니다. 본인이 한류 팬이어서 한국 여행이나 유학을 가고자 해도 가족 등 주변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한류를 인정하고 즐기기도 하지만, 한국은 싫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2년 전 일본 아이돌 그룹 AKB48의 멤버 다노 유카는 SNS에 "한국인은 귀엽고 한국 음식도 맛있지만,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은 싫다"는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죠. 최근 '사랑의 불시착'을 봤다는 한 20대 일본인 남성도 "드라마는 재밌게 봤고 추천할 만하지만, 한국을 좋아하진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장년층 혐한 기저에는 '과거에 머무른 시선'**

대부분의 일본 중장년층 세대에게 한류 붐은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의 사와다 가쓰미 논설위원에 따르면,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해 그들은 보통 "전부 한국 탓이니 용서할 수 없다" "한국은 건방지다"와 같이 반응합니다. 많은 이들이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은 한국을 배려해줬고, 한국이 발전한 것도 일본이 도와줬기 때문인데 이제 와서 약속을 뒤집고 배은망덕하게 군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같은 사고의 기저에는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내려다보는 묘한 우월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K팝, 한국 드라마 등을 접하며 한국 하면 최신 유행이나 최첨단 등 밝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1020세대와 달리, 이들은 한국에서 군사독재, 개도국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 때문에 일본 중장년층이 이 같은 우월의식에서 자유롭지 않은 건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것인 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가장 왕성히 활동하던 시절 한국의 국력은 일본과 비교가 안될 만큼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부지불식간에 한국을 낮춰 보는 데 익숙한 이들 세대에게 목소리가 커진 근래 한국의 모습은 건방져 보이는 거죠.

과거 일본이 잘나가던 때는 한국 측 주장을 수용하는 여유가 있었지만,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그런 여유가 없어진 것도 중장년층 사이 혐한이 두드러지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나카지마 다케시 도쿄공업대학교 교수는 아시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성장으로 상대적으로 한국의 지위가 올라가고 일본 지위는 내려간 것이 중장년층 사이 혐한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한국을 알보던 중장년층은 주장이 강해진 한국을 고깝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것이 현재 일본 내셔널리즘의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내놓는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에서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점차 좁혀져 왔습니다. 결국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기저에 깔린 차이가 현재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혐한 속에서 한류가 소통과 공생의 가교 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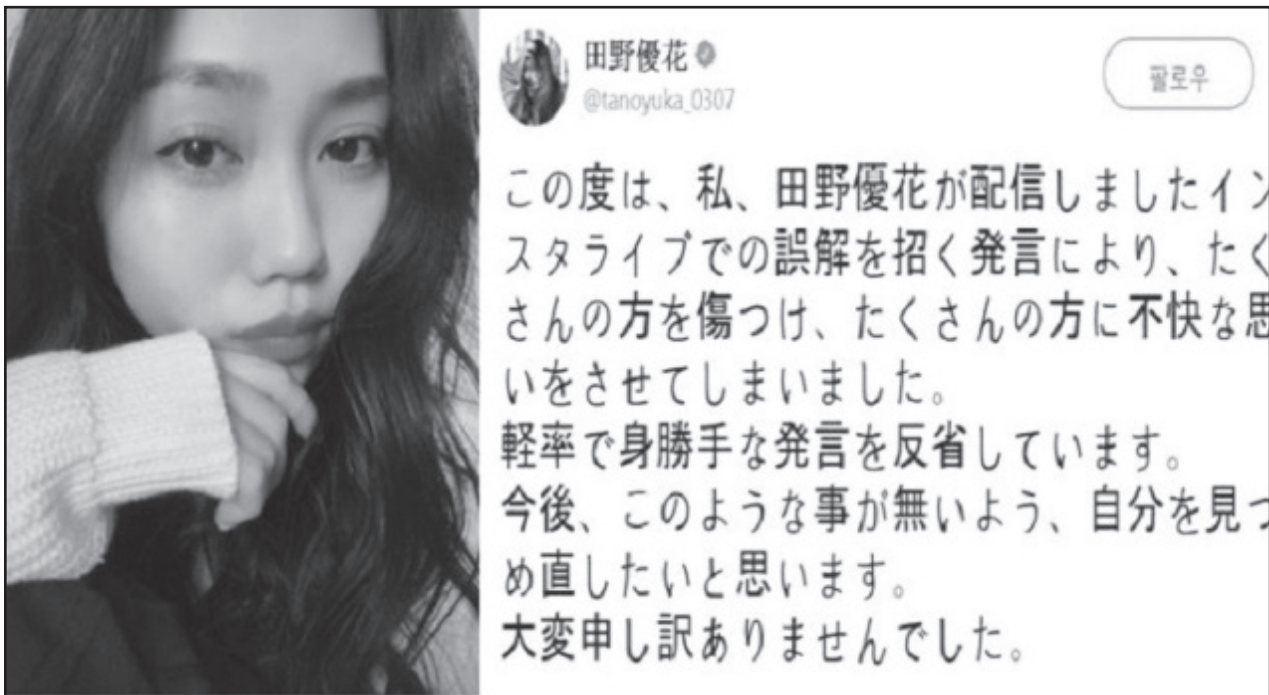
근래 연이어 불거진 외교적 마찰로 인한 혐한과 반일의 핑퐁게임 속에서 양국 국민 간 반감은 최고조에 달한 듯합니다. 남들 앞에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들이라지만 최근엔 누구나 한국이 싫다는 말을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가 되는 소리도 들립니다.



▲ 2000년대 초 겨울연가로 신드롬급 인기를 누린 '온사마' 배용준(좌)/일본에서 150만 관객을 끌어모았던 영화 '슈리'



▲ 지난 2018년 일본 극우세력이 도쿄 긴자에서 '일한(日韓) 단교'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혐한시위를 하고 있다



▲ 일본 아이돌그룹 AKB48의 타노 유카는 과거 혐한논란이 된 발언 후, 트위터를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사진=트위터 캡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에 민간 교류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전문가들은 물론 한류 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정치 문제로 어려울수록 민간 왕래가 더 활발해져야 상호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며 파국을 막을

수 있기에 한류가 양국 간 소통과 공생의 가교가 될 수 있는 거죠. 한류를 즐기는 일본 젊은 이들 모두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한국에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의 행태가 맘에 안 든다고 이들을 밀어내는 것은

능사가 아니며, 전해지는 일본 관련 소식마다 감정적 악플을 쏟아내는 것도 이들을 위축시키고 혐한 세력에겐 빌미를 주는 일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문화는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한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문화의 근원, 목표, 모범이 돼 세계 평

화가 우리로 말미암아 실현되길 원한다"며 문화의 힘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류의 훈풍이 계속 이어진다면 김구 선생의 말처럼 문화의 힘으로 언젠가 한일 간 정치적 불통과 역사 갈등을 넘어 혐한의 증오심도 저절로 녹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페이지에 이어)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젊은 이민자들이 돈을 좀 들고 오고 영어도 잘하지만 일자리나 비즈니스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눈높이도 다른 것 같습니다. 컨비니언스 세탁소 등 전통적인 한인사업도 텅 비들기에 만만하지 않구요.

저는 알버타주 이민장관 경제장관이 주관하는 모임이 있으면 자주 참석합니다. 알버타 UCP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으로 더 많은 농식품 가공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주 정부가 향후 4년간 알버타의 부가가치 농업 가공에 14억 달러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정말로 중요한것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캐나다에서 어

떤분야에 투자를 해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의 교류를 증대시키는길을 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캘거리도 석유산업 침체로 공실이 많이 늘어난 다운타운 오피스를 IT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좋은 조건의 유인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레스브리지나 사스캐처원 쪽에 중국인이나 베트남 사람들은 비닐하우스 등 농업부분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한국분들은 잘 모르고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우리 한인들에게 알리고 대비시키도록 하는 것도 한인단체들이 할일이지요."

Q: 영어를 잘 하시는데 어떻게?

A: 당시 한국에서 영어

를 익힌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여기와서 배웠습니다. 캐나다인 회사에도 다녔고 SAIT에 등록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 주류사회에 접근이 되어 캐나다 정부에서 일하는 의원들과 친분을 샀고 그런 인연으로 아르바이트에 헤리티지 기금도 유치할 수있었습니다."

Q: 최근 캐나다 서부 지역 한인 여성회장직도 맡으셨다고 하는데, 더욱 어깨가 무거워 지셨겠습니까.

A: 6년전 캐나다 서부 지역 한인여성회를 설립할 때부터 창업멤버로 일하긴했는데 그동안은 에드몬튼과 밴쿠버여성회에서 회장직을 맡다가이번에 제 차례가 된 것이지요. 한인들이 뭉쳐서 소통하고 무언가 해낼수 있다면 서로 도와 소매 걷어올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야지요"

## 당신에 대한 아름다운 추모는 현재의 삶만큼 중요합니다.

Pre-planning으로, 당신의 뜻 대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는 재정적 준비뿐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 입니다.

이 중요한 첫 단계를 Eden Brook과 함께 Eden Brook은 최근 캘거리 한인회와 Arbor Alliances Program을 통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저희 전문 카운슬러들에게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 Corinne Wiebe T.403-973-9051

**Eden Brook Memorial Gardens & Funeral Home**  
by Arbor Memorial

17th Ave SW & Lower Springbank Rd, Calgary  
T. 403-217-3700 www.edenbrookcemetery.ca